

“주지취임식대신 노인잔치로”

공주 마곡사 어울마당 2천여 노인 흥겨운 하루

“내년에도 또 옵시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공주 마곡사(주지 진하)가 10월 30일 마련한 '98어울마당 노인잔치'에 참석했던 두 할머니가 헤어지기 아쉬운 듯 법당을 향해 연신 합장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곡사 참전 이래 지역 노인을 초청, 경내에서 노인잔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주민들이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 부임한 주지스님이 취임식 대신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지역 노인들은 “큰스님은 큰스님인가봐요.” “보잘것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다니...”라며 주지스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주지 진하스님은 “지역주민들에게 마곡사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인위안잔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트럭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걸어서 마곡사를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먼저 부처님을

찾아 삼배를 올렸다. 대부분 노인들이 오랫동안 마곡사를 찾았다고 털어놓았다.

심봉수 할아버지는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이생에는 마곡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며 “젊었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지금과 보니 많이 변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곡사 인근 사곡면 등 4개면을 비롯 각 말사의 노인불자 2천여명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4시간 동안 성대하게 진행됐다.

최운희 무용단의 한량무, 태평가, 살풀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어울마당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사회자의 맛깔스런 재담에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시간에는 박수를 치며 흥겨워했다.

마곡사는 이날 회향사에서 권옥경(99) 할머니를 비롯 각 지역 최고령 노인 5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매년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공주 마곡사는 주지 취임식 대신 노인 위안잔치를 열었다.

국보 미륵사지석탑 붕괴 위험

기단부 기둥 균열...지반 보강등 대책 절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청 의뢰로 탑의 안전 진단을 맡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4일 미륵사지 관리사업소에서 개최된 ‘미륵사지 석탑 학술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최종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12월말 최종 복원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권경원 책임연구원은 “249개의 탑재에 대해 등급을 나눈 결과 양호한 상태가 76개, 보통 45개, 불량 128개로 조사됐다”면서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당장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강호 수석연구원은 ‘구조상태를 고려한 조치 방안

에서 “일부 기단부 기둥에서 압축 파괴로 보이는 균열과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경사진 기둥이 발견됐다”며 “미륵사지가 구조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탑은 그대로 놔두고 지반만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경기도립박물관장(문화

대전 춘천 포교거점지역 지정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 운영 육련안은 시범사찰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4일 대전과 춘천을 포교 거점지역으로, 은양육련안(주지 종인, 마곡사 말사)을 포교 시범사찰로 지정했다.

이로써 포교거점지역은 지난해 지정된 인천 목포를 포함해 4곳, 포교시범사찰은 7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지역은 중앙행정부서의 이관으로 행정의 중심지와 지방화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지역불교를 이끌 역량이 비축되지 않아 포교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다. 춘천지역도 도청소재지로 강원지역의 중심지지만 지역불교 역량이 미약한 실정이다.

조직위원회는 두 지역의 교구본사인 마곡사와 신흥사에 전법책임과 지원을 요청해 포교활성

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역에는 지역사찰 연합체를 구성하여 전법도량을 개설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새로 지정된 전법도량에 이달 중 지원금을 전달하고 내년 봄 전법도량 현관식 및 순회법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은 기자

봉은사 신도 1백여명 승가대 항의 방문

봉은사 주지 임명과 관련, 봉은사 신도들과 중앙승가대동문회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봉은사신도회와 봉은사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 1백50여명은 2일 중앙승가대대학을 방문, 승가대동문회와 일부 학인들의 10월 30일 봉은사 진입시도에 항의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중앙승가대동문회(회장 효종)는 “신임 주지 임명 전까지 무상스님이 주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10월 30일 상황은 무상스님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opia.com)

북한산 사찰출입금지

인근 사찰-신도들 반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찰에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돼 사찰과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삼삼암 주지 법보스님은 “얼마 전까지 토요일 등 정상객이 많을 때만 출입을 통제해오다, 최근 들어 평일에도 지정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신도들의 생활편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신도단체 등록접수

조계종단 산하 전국규모의 신도단체가 되려면 포교원에 단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계종포교원은 10일 신도단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까지 전국단위 신도단체 등록 접수를 당부했다. 기존의 등록단체도 구비서류를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시 조계종단 산하 신도단체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신도법에 의하면, 전국단위 신도단체를 특별시 또는 2개 광역시, 3개 도 이상에 3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동일한 명칭과 규약 아래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은 기자

14일 화염사상 학술강연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은 탄허대종사 열반 15주기를 맞아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화염사상 학술강연회 및 (화염경론회석)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화염사상 학술강연회’에는 △이통현장자의 화염사상(각성스님, 삼일선원 지도법사) △화염사상 연구와 탄허대종사(정병삼·숙명여대 교수) △한국의 역사와 화염사상(최병현·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237-4438 김중근 기자

장기수와 위안부의 만남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지원) 장기수회원 7명이 14일 나눔의집을 방문, 중군위안부 할머니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장기수들은 1박2일 동안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육의 세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징용희생자 유골 천도제

나눔의집(원장 해진스님)은 3일 연화법당에서 일제치하에 중국 해남도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해남·매장된 영령에 대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제에서는 해남도 철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장일웅 등이 지난 2월 해남도에서 조계사로 유골을 옮겨 놓은 것을 자화유골연구소가 자화사(사리형태로 가동한 자화유골)로 가공해 나눔의집에 안치하는 의식도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사명대사 친필문집 공개

사명대사 유정스님(1544~1610)의 친필 문집 (용담유고(龍潭遺稿))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서 23장, 행서 14장 등 모두 37장으로 이뤄진 이 문집은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599년 용담(지금의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머물던 중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임흥섭의 한시(韓詩)에 감복, 옮겨 적은 것이다. 충청 임씨 선무랑공파 종친회는 4일 (용담유고)를 발간시에 기증했다. 김정은 기자

국립공원 오수 44% 무단방류

국감서 조성준의원 주장

사찰 오수발생율 2.7%

국립공원내 오수가 44% 이상 무단방류되고 있으며, 이중 사찰 오수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성준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에서 “18개 국립공원내의 건물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오수량은 6만7천9백톤(t)이나 이중 정화처미되는 오수는 3만7천7백t에 불과하고 44.4%(3만1백t)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 5백47개소 중 2백26개업소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또 국립공원내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일반건축물이 43.9%로 가장 많고 식품접객업소 28%, 숙박업소 23.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찰(2.7%) 목욕장업소(1.1%) 산장(0.2%) 등은 매우 적은 양의 오수를 발생시켰다. 조의원은 이밖에 국립공원 사법경찰관을 선진국의 ‘공원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동국대생 1천명 농성

재단 '무효 절대불가'

송노구 총장 재선출과 관련, 동국대 총학생회(부학생회장 이미성)는 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의 일방적 총장납직 전면무효화 동맹휴업 성사대회’를 갖고 총장실을 점거, 6일 현재까지 농성 중이다.

또 교수회와 교직원노동조합도 이사회에 송승구 총장 일방적 재임결정에 반발, 10월29일부터 철

야농성에 돌입했다. 5일에는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송재운 재단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이사회에 비민주적 총장선임 결정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재단이사회측이 ‘무효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교수회는 총장직선제를 추진키로 하고, 11~13일 후보 등록과 함께 오는 12월9일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사회복지 대표자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 강당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7월1일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폐지시키고 이를 보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새로 제정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추진키로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6월5일 8개 종교계(9개 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회를 발족시킨 후 실질적 속자 대책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종교계가 종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폭넓은 의견교환과 정보교류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경 기자

50만원 든 한국불교 알리기

려왔다. 육서퍼드대학 도서관에서는 “발간된 책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에 요청했다.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 함께 소개한 ‘코리안 부디즘’의 발송비용은 약 5만원, 책값은 1만2천원으로 모두 합쳐 50만원이 채 들

목탁 소리

정성운 (취재 1부 차장대우)

학 도서관(인문학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대학) 등이다. 책자를 받아본 곳에서 감사편지를 보내는 등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워싱턴대학 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학교의 여러 기관에서 연구자료를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알

저비용 고효율,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기업과 가정 등 경제주체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도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다. 더구나 지금이 저비용을 바짝 조

저비용 고효율,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발행된 ‘코리안 부디즘’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미래,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조계사 불국사 석굴암 금산사 법주사 범어사 화엄사 직지사 정암사 등 사찰, 불교예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부흥민석계장은 “한국불교 존재 자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성과가 좋음에 따라 2차로 50개 해외기관을 선정, ‘코리안 부디즘’을 보내 한국불교 알리기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승거로 견지동 주빈이 어수선하다. 서로 할뜬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50만원으로 한국불교 알리기 소식을 전해주며 탄식이 잦아들길 바란다. (swjung@buddhopia.com)

訃告

海印叢林 第12教區 本寺 海印寺
前住持 東光堂 明振大和尚 佛紀 2542年 11月 1日 午後 2時
世緣이 다하여 入寂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42年 11月 5日 午前 11時

■ 永訣式場 : 伽椰山 海印寺

■ 茶毘場 : 海印寺 蓮華台

大韓佛敎 曹溪宗 第12教區 本寺 前住持이신 東光堂 明振大和尚 永訣式 및 茶毘式을 海印叢林葬으로 佛紀 2542年 11月 5日 宗團의 元老스님 및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하였 습니다.

公私間 多忙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에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리오며, 일일이 찾아 뵈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올리오니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海印叢林 葬儀委員長 普光

◆문의 및 연락처 : 해인사 ☎ 0599-931-1011,2,5 팩스 0599-931-1010

東光堂 明振大和尚 海印叢林 葬儀委員會